

02 |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중피종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P는 A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11월 늑막삼출액이 있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중피종으로 진단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P는 A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차체신차팀에서 제품설계 및 설계사양 반영 확인 그리고 문제 개선 등을 주로 하는 사무직으로 2007년 상병 발생까지 약 26년간 근무하였다. 1982년 3월부터 1995년 9월말까지 약 15년간의 의장설계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방문작업 중 주변공정(롤 테스트 공정)에서 발생한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석면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0년대에 버스의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에 석면제재가 사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90년대 초중반까지도 석면제품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P에 의하면 1981년 11월부터 1995년 9월말까지 시제품 개선을 위해 주 2-3회, 회당 3시간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회사 측은 P의 직무가 연구업무임을 들어 비정기적인 방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해당 기간 출시된 버스 차종 수 등을 고려할 경우, P가 주장한 주 2-3회, 회당 3시간 정도 현장 방문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P는 2007년 8월경부터 마른기침, 어깨 결림, 가슴 떨림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2007년 11월 사내 건강 검진에서 늑막 삼출액이 있어 병원에서 2007년 11월 27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및 흉막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30일 악성중피종으로 조직학적 진단이 이루어졌다. 치료 내역으로는 2007년 12월 21일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하였으며, 근치적 종양절제술은 종양의 광범위한 주변 조직 침윤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2008년 1월 15일부터 항암 화학 요법 4주기 시행하였다. 항암 화학 요법에 대한 반응은 유지 병변을 보였으나, 항암화학 요법에 대하여 불내성을 보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시행한 흉부 전산화 촬영에서 병의 진행 소견을 보였으며, 현재는 모든 치료를 중단한 채 요양 중에 있다.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었으며 생활 습관은 과거 20년 동안 술은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 담배는 하루에 0.7~1갑 정도 피웠고, 술, 담배 모두 3년 전 끊었다고 한다. 석면에 대한 특별한 환경성 노출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 결 론

근로자 P는

- ① 흉부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았는데
- ② 최초노출 후 발병시점까지 약 30년으로, 잠복기를 만족하고,
- ③ 롤 테스트장 주변 작업 중에 석면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장 내부는 일반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보다는 노출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 ④ 생산직이 아니어서 간헐적으로 노출되었다고는 하나, 약 15년간의 장기간 현장 방문이 이뤄졌으며,
- ⑤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소량의 분진 노출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근로자 P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